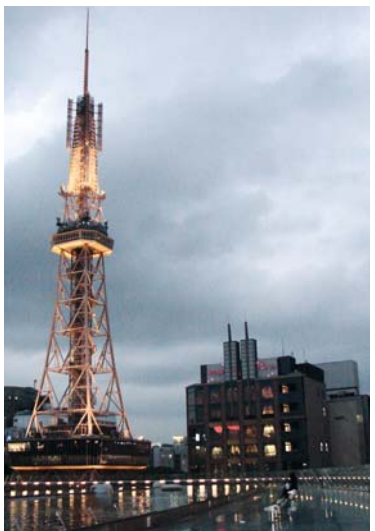


## 年 255일 공연·전시...나고야 살린 '문화 오아시스'

문화회관·공원 묶어 복합센터 조성  
점포 31곳 한해 매출만 450여억원

나고야=글·사진 윤현석기자

인구 226만명으로 일본 4번째 도시인 나고야시는 이미 25년 전 구도심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편으로 문화 및 상업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2002년 10월 개관해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오아시스 21'이다. 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해 쇠락한 구도심의 재성을 꿈꾸고 있는 광주가 주목할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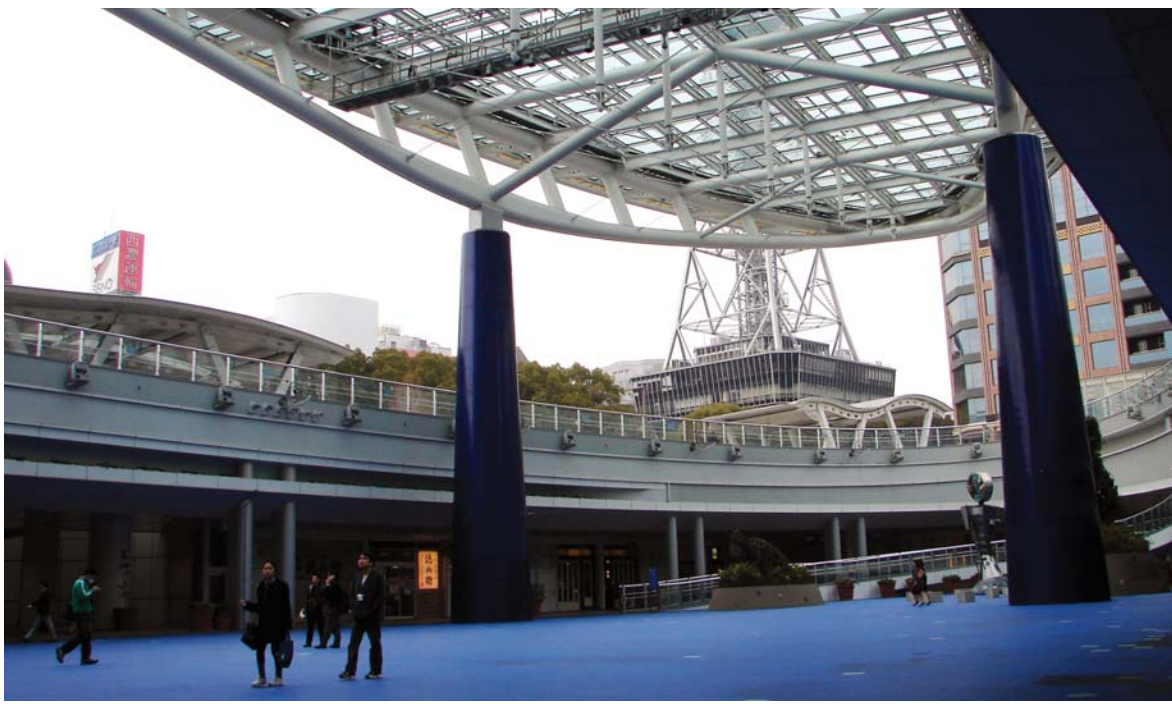
오아시스 21의 '물의 우주선'에서 바라 본 테레비 탑.

한 모델이 되고 있다. 6609명의 시민이 참가한 공모를 통해 지어진 '오아시스 21'은 말 그대로 삭막한 회색빛 도시에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취지가 담겼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전 나고야의 구도심에는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100m 도로 중앙에 히사야오도리 공원과 테레비 탑 등이 있었지만 유동인구 감소와 상업·업무시설 공동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고야시는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하자 히사야오도리공원과 테레비 탑 인근에 위치한 NHK 나고야회관과 아이치현 예술문화회관을 주목했다. 지은 지 40~50년이 넘어 재건축해야 할 이들 건물과 인근의 사카에공원을 묶어 구도심 내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곳은 나고야의 도심 양쪽인 나고야역 역세권과 중심가인 사카에지구의 중간에 위치해 지정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고야시 주택도시국 거점마치즈 쿠리과 마츠코토 유이치(松本有一) 주사는 "1986년 계획을 수립한 뒤 이해관계자와 협상, 운영기관 설립, 계



연중 250일 이상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오아시스 21'의 지하에 위치한 '에하광장'.

획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13년 만인 1999년 공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시에 반짝이는 물과 녹색의 보석상자'라는 모토 아래 1.98ha의 부지에 조성된 오아시스 21은 지하에 가인 사카에지구의 중간에 위치해 지정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하광장에서는 지난해에만 255일 동안 공연 및 전시, 쇼 등 각종 이벤트

가 열렸고, 그 주변에 배치된 31곳의 음식점·물품판매점 등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10~70대까지 다양한 계층이 즐겨 찾고 있다.

태양전지를 곳곳에 설치해 전기를 공급하고 빗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건물로 조성됐으며, 특히 방문객들이 걸어서 주변의 히사야오도리공원을 물론 나고야역, 사카에지구까지 갈 수 있도록 '연계'시키면서 이 시설은 구도심의 '문화·상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점포 31곳의 매출은 33억9000만엔(약 456억원), 방문객 수는 무려 1386만명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사카에공원진흥의 오카모토 유키오(岡本幸雄)씨는 "오아시스21의 운영은 나고야시(52.5%)와 지역 기업체들이 출자한 제3섹터인 (주)사카에공원진흥이 맡고 있다"며 "당시 일본 경기저하를 우려해 상점 수를 줄인 것이 현재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chadol@kwangju.co.kr

## 광주시·전남도 5년만에 광역행정협의회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10일 광역행정협의회를 갖기

로 해 주목된다.

지난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시·도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를 갖는다.

이번 광역행정협의회는 지난해 7월 민선 5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인데,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 왔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에 이번 협의회에 무안공항 활성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 등 13개 안건을 제안했으며, 전남도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등 11건을 제안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오후 시청 강운태 시장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광주·전남행정협의회를 잘치하

준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와 전남이 한 뿌리고, 힘을 합해

10일 공항문제 등 논의

도 부족한 마당에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외국에 나가보면 (도시의 발전에는) '접근성'이라는 요소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남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의 광역행정협의회는 지난 2006년 7월 개최된 이후 8년간 열리지 않았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저소득층 영끌계수

5년만에 최고치

지난해 식품 물가가 급등하면서 가계의 식품구입비는 늘었으나 채소와 과일, 수산물 등은 되레 소비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영끌계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식품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끌계수(명목 기준)를 소득 5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는 20.47%로 전년(19.98%)보다 높아지면서 2005년(20.7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오늘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열립니다

새봄을 함께 달립니다

3·1 구국정신을 기리며 남도의 새봄을 질주하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오늘 오전 8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남평사거리 구간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46회째 남도민의 사랑을 받아온 3·1절 마라톤에 동호인·직장·가족 등 1만여명이 참가를 신청해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18면>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코스로 이용되는 일부 도로에 대한 교

교통 통제 양해 바랍니다

우천시 비웃 나눠드립니다

통제제가 이뤄지고, 시내버스 10개 노선이 조정되는 점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시로 운행 구간이 일부 바뀌는 시내버스는 철단20·풍암61·상무64·대촌69·대촌71·진월77·진월78·송정99·대촌170·대촌270번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오전 6시까지 대화장 일원에 1~4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광주일보사는 비웃을 준비, 우천 시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나눠 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시내버스 노선 임시 변경

노선번호	운행경로(현행▶변경)
철단20	철단~염주사거리 ↔ 월드컵경기장 ▶ 철단~염주사거리 (→회정남초교~력기아파트~염주중)
풍암61	세하동~대동고~문화전당 ▶ 매월동~대동고~문화전당
상무64	세하동~5·18자유공원~비엔날레전시관 ▶ 상무지구~5·18자유공원~비엔날레전시관
대촌69	철석~전남고입구~양동시장역 ▶ 상무지구~전남고입구~양동시장역
대촌71	구소~매월동~양동시장 ▶ 매월동~양동시장
진월77	노대~대동고~세하동 ▶ 노대~대동고~매월동
진월78	이동~대동고~세하동 ▶ 이동~대동고~매월동
송정99	용봉마을~문촌~양동시장역 ▶ 용봉마을~문촌
대촌170	노대~대촌동사무소~대인광장 ▶ 대촌동사무소~대인광장
대촌270	매월동~전남고입구~구소 ▶ 매월동~전남고입구~상무지구

光州日報社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정국 제92주년 3.1절

# 베트남쌀국수 업계 1위!

“창업 누구나 할수 있지만, 성공 누구나 할수 없습니다. 호아빈 여러분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 **Hoa Binh**

전국 100여개 매장운영!

지금 전국 각 매장에서 호아빈의 성공창업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웰빙아이템**  
건강식, 다이어트 식을 찾는 현대인들의 웰빙 아이템!
- 브랜드파워**  
쌀국수 업계 1위 브랜드의 힘! 많은 고객들께 검증된 입소문!
- 물류직배송**  
본사직영 체계적 물류 시스템. 메뉴얼을 통한 조리법 제공!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창업 지원 센터  
**080-040-2525**  
www.hoabinh.co.kr